

달성주차장~목포역 '관광루트 테마거리' 조성

목포시 목원동 도시재생사업 어떻게 돼가나

목포시가 사업비 201억 원을 들여 목원동 일원 60만㎡를 대상으로 조성중인 도시재생 선도 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이 사업의 프로젝트 명은 전라도 사투리인 '그랴요(GEURAYO, 전라도 사투리)'로 결정됐다.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로 원도심 목원동의 활력을 증진시킨다는 게 최종 목표다.

목포시는 지난 31일 도시재생위원회 3차 심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목포시 도시재생 선도 지역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안'을 확정,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그랴요'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고 성공적 도시재생을 위한 과정은 뭔가를 짚어봤다.

◇'그랴요'에 담긴 내용은 뭔가=4대 기본 테마를 바탕으로 10대 마중물 사업에 3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 테마는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상가 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역사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업 지구 내 공가와 공실 점포를 작가의 집으로 꾸며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산재된 근대건축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게스트 하우스'와 '술 문화 이야기관'으로 재탄생한다.

지역 문화자원과 자드라(비탈면에 형성된 골목길)를 연계한 '관광루트 테마거리'를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된다.

이 관광 루트는 달성주차장→자드라 골목길→마인게터→술 문화 이야기관(보해 건물)→중앙식료시장→차 없는 거리→오거리→목포역에 이르는 총 2.64km로 2시간가량 소요된다.

또 목포를 대표하는 특화상권을 조성



목포시가 사업비 201억 원을 들여 목원동 일원 60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지 전경.

작가의 집·특화장터 등 4대 테마·30개 사업 210억 투입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게스트하우스·술 문화관 재탄생

역사 스토리텔링+지역 라이프스타일 점목 원도심 활기

을 통한 상가 활성화 도모를 위해 목원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야시장 운영을 통해 중앙식료시장을 특화장터로 탈바꿈시킨다. 이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어울림 회관을 권역별로 조성해 공동체 활동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모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14건 가운데 최종 6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할매 텃밭 가꾸기, 건강발상사업, 정원 가꾸기, 창작공예 개발 및 시연, 포토 존 조성 및 콘테스트 사업이다. 시는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내년 1월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과는 '무엇인가 특별한, 무엇인가 새로운, 누구도 실현하지 않은 프로젝트

승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달 24일 9개과 15명으로 '도시 재생 선도사업 T/F팀'을 구성해 9월부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목포대 강봉룡 교수를 총괄 코디네이터로 위촉하고, 기획·문화예술·건축 관광 등 3개 분야 전문 코디 3명도 선임했다.

앞으로 도시재생과는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위탁운영자·사업 참여 희망자 선정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도시재생 선도사업 T/F팀과 전문 코디네이터들의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기본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해 연차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성공적 도시재생=전문가들은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사 중심의 스토리가 있고, 지역중심(location base)의 장점이 '라이프 스타일'을 가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의 특성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테마화하려는 것은 오히려 매력 이 반감될 수 있고, 그 지역만의 고유형적인 가치를 발굴·활용하는 게 가장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란 "근현대사를 통해 그 수명을 다한 건축물을 재생시켜 지역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하는 행위이고, '로컬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내는 종합예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또 골목길은 단순한 상권 확장장이 아닌 새로운 도시경쟁력과 활력소를 불어 넣는 창조경제의 기회요소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팀과 공공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스토리텔링 개발 집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어 이들은 "지역 도심재생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각도 보다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남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배타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협소한 내 안의 적부터 없애 것"을 주문했다.

/*목포=임영춘·고규석 기자 lyc@

홀로 사는 노인 매일 안부 살핀다

목포시 복지시책 개선...우유 등 주 2~3회 요일 지정 배달

목포시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시민 밀착형' 복지시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시책을 대폭 개선해 주



목포시 대성동 복지도우미가 관내 독거노인을 방문해 말벗을 해드리며 안부를 살피고 있다.

유나 요구르트를 배

달해주는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이들과 소통을 통한 정서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존의 운영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사망 후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해 고독사를 사전예방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노인장애편과는 그동안 사업비 3000여만 원을 들여 21개동 169명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요구르트·우유·두유 등을 배달해주는 노인 안부살피기 시책을 펴왔다.

하지만 주 1회 방문할 경우 독거노인 안전 확인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주 1회 배달시 유통기한 초과 등 문제점이 발생해 이번에 지원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노인장애편과는 복지도우미·장

애인 행정도우미·공익 근무요원을 활용해 매일 한 차례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안부를 살피고, 주 2~3회 요일을 지정해 정기 배달키로 했다. 또 복지협의체 위원들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지역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시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안부살피기 활동일지를 작성해 분기별 실적을 보고 받아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해자 노인장애인과장은 "목포시민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시책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 같은 '선(先) 순환적 복지 시스템'을 통해 계층별·대상별 복지 서비스를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김현수씨...시립합창단은 정영재씨

목포시립예술단의 새로운 사령탑이 선임돼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시립예술단'으로 거듭나게 됐다.

목포시는 올해로 창단 32주년을 맞는 목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에 김현수(41)씨를, 창단 30주년 맞는 목포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에 정영재(40)씨를 각각 선정했다.

김 상임지휘자는 서울대 음대에서 작곡과 동대학원에서 지휘학을, 뉴욕시립대학교 퀴즈칼리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로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대에서 지휘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한 재원이다.

김현수 상임지휘자는 "시민들의 세심한 사랑으로 운영되는 시립교향악단이 최고의 음악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단원들과 호흡하면서 그동안 길고 닳은 실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목포시향을 이상적인 시립예술 단체로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정영재 상임지휘자는 목포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뒤 장로회신대 대학원에



김현수 지휘자



정영재 지휘자

서 합창지휘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탈리아 '마르코 발레리' 지휘자로부터 성악과 오페라 지휘를 사사받고 있다. 열정과 감성의 테크닉션, 테너 합창 등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통해 합창 단원들과 원만한 소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 상임지휘자는 "목포시립합창단의 지휘자 자리에 공백기가 있었던 만큼 하루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단원들과 소통해 시민들에게 음악으로 봉사할 수 있는 합창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관광루트 테마거리의 핵심 골목길로 꼽히는 마인게터 입구. 이 골목길에는 마인게터에 얽힌 스토리와 함께 남동과 임동의 예술촌이 서려있다.



목포를 대표하는 특화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특화장터로 탈바꿈될 중앙식료시장 모습.

금리 부담은 낮게, 대출은 쉽게!

광주문화신협, 북광주신협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수수료 면제

아파트 담보대출(특별금리상당) 최저금리 적용 으로 감정가 최고 80% 까지 가능 추가 신용대출 가능	상가 담보대출 빌딩, 단독상가, 아파트상가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신용에 따라 상가대출+신용대출 까지~ *대출금리: 특별 우대금리 *대출한도: 최고 50억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 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7천만원 까지 가능	정부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사업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
자영업자(무담보/무보증) 승승장구론 개인(창업) • 임대사업장 최대 2천만원 자금대출 • 자가사업장 최대 3천만원 운영자금대출 / 최대한도 7천만원	아파트 임대보증금대출 전세 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블루밍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북광주신협 일곡지점 572-8167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최고의 마진 ▶ 최소의 창업비용 ▶ 최소의 인건비 ➔ **“산수옥면가”** 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육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학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